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7월
2026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경산지점 거래고객
육일산업(주) 김광석 대표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강서중앙지점 거래고객
(주)자바펜 정창수 대표

IBK로 국민연금 만나고 일상이 즐거워졌다

국민·공무원·사학·군인까지
4대 연금과 IBK가 만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IBK로 첫 4대 연금 받거나
IBK로 연금 계좌 바꾸면
최대 6만원의 혜택이

쉽고 편하게 IBK로
튼튼하게 IBK로

개인금융도 역시, IBK



IBK에서 쉽게, 지점에서 편하게
연금 입금계좌변경 서비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최대 6만원의 혜택을 받으세요
4대 연금 첫 수령 고객 이벤트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046호(2026.04.15) [유효기간: 2026.12.31]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이벤트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



04 여성시대 특집
여성시대 스튜디오에서



08 이달의 편지
'다정함은 새벽 육아도 웃게 해' 외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육일산업(주) 김광석 대표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주)자바펜 정창수 대표

80 코너 속 편지
'사랑의 배달' 외

109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자축의 시간

112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참교육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여성시대

발행일 2026년 7월 10일 발행인 ㈜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박정연, 신지호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에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콩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견월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진 102.7 울릉도 98.5

여성시대 스튜디오에서



지난 6월 7일은 진행자 양희은 님이 여성시대를 진행한 지 2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축하와 감사의 마음이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습니다.



2026 신춘편지쇼
심사를 맡아주신
배우 박중훈 님을
만시고 신춘편지쇼에
관한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푸바오 할아버지
에서 이제 텃밭
농부로 변신한
강철원 사육사님을
만났습니다.



열린 화요일
특별 초대석에
가수 윤수일님을
만났습니다.

5월 20일
열린 화요일에
배우 김지선님과
오민석님이 찾아
주셨습니다.





5월 29일에 '2026년
볼로냐 라가치상'
특별 부문 대상을
거머쥔 이경배 그림책
작가를 만나고 그림책의
세계에 빠져보았습니다.



5월 28일
가수 홍경민 씨가
출연해 남자의
속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매달 첫 번째 화요일은
테너 조용강님을
만나고 '월간 조용강'이
진행됩니다. 귀는
시원하고 마음은
똥굴똥굴해지는 시간입니다.





5월 26일 열린 화요일에서는
뮤지션 김광진님을 초대해
감미로운 음악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6월 며칠간 자리를
배운 양희은님을 대신해
배우 한혜진님이 여성시대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매주 목요일 여성시대를
통해 만나는 중전면
배기성님과 아내
이은비님이 5월 21일 부부
의 날을 맞아 여성시대를
찾아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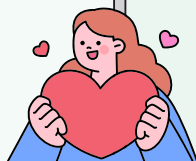
6월 8일 짝짝 초대석
에 배우 송일국님과
오만석님을 모시고
역사와 뮤지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464] 저는 마흔세 살 아저씨입니다. 드디어 금주를 시작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정선화] 얼마 전 제 생일날 저녁 갑자기 문자 30여 통이 오는 겁니다. 고등학생 딸의 친구들이 제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낸 겁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0242] 7년째 송파에서 오리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 가게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함께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3335] 안녕하세요! 분식&카페 오픈한 지 1주년 특별한 날이라 문자 보내봅니다.



[0429] 저희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데 모든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요. 어디 나갈 때마다 타서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품위 유지비를 달라고 했더니, 다음날 제 통장으로 돈을 보냈더라고요. 여보, 고마워요.



- | | |
|---------------------|--------------------|
| 10 다정함은 새벽 육아도 웃게 해 | 35 어머님과 된장 |
| 12 새롭게 태어나다 | 38 하소연 좀 할게요 |
| 16 바람 속에 핀 꽃 | 43 삶이 힘들지라도 |
| 21 나에게 여성시대는 | 47 중년의 유목 생활 |
| 25 일본인도 듣는 여성시대 | 52 긍정적 스트레스 |
| 28 특별한 인연 | 56 오랜 나의 취미 국궁 |
| 32 여름날의 동행 | 58 암 수술 기다리는 찌칙한 딸 |



Letter 01

다정함은 새벽 육아도 웃게 해

박상아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저녁 8시에서 새벽 1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육아를 담당하는 시간입니다. 평소라면 아기를 재우느라고 요해야 할 밤, 하루 종일 신생아와 전투를 치른 저도 겨우 쪽잠을 청해보는 귀한 시간인데 그날은 웬일인지 아이를 재운 후에도 한 시간째 달그락달그락 부엌에서 부산스레 움직이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습니다.

‘나 좀 자야 되는데 왜 저래!’ 화를 삭이며 홈캠을 보니 홈캠 속 아기도 시끄러운지 귀를 막고 뒤척거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억누르며 1분만 또 1분만 참아보다가 결국 나가서 한마디 쏘아붙여야겠다 하는 그 순간 문득 그날 오후에 남편과 나눈 통화가 생각났습니다.

비도 오는데 잘 있냐는 남편의 다정한 물음에 저는 제 할

말만 투덜투덜 늘어놓곤 성의 없이 전화를 끊었거든요. “아기 낮잠 시간에 평일에 먹을 반찬을 좀 해두려 했는데 아기가 자꾸 보채서 밥해 먹을 시간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이죠.

언제 보았을까 싶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아이 목욕에 분유 수유까지 정신없이 받아 든 미션 중에도 남편은 기어코 텅 빈 냉장고를 확인했나 봅니다. 그리고 결국 해내지 못한 저의 ‘반찬 만들기’ 숙제는 덩그러니 남겨진 조미김 포장지 두 봉지에서 고스란히 들통이 났겠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감자볶음과 멸치조림을 엉성하게 해서 반찬통에 담고 있는 남편. 출퇴근과 육아로 지쳐 비틀대는 순간에도 제 작은 말 한마디를 허투루 흘리지 않고 챙겨주는 그 모습이 저를 다시 부축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 모습에 반해 결혼했지. 아기가 있기 전부터 이리도 따뜻하게 날 챙겨주던 남자였지.’

아기를 챙기는 책임감을 묵묵히 나누어 가져주는 고마운 사람. 그에게 “안 해도 되는데 왜 하고 있어”라며 투박한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받은 이 따뜻함으로 저는 또 새벽부터 깨어 올 아기에게 힘내서 사랑을 줄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귀를 막고 잠을 청하고 있는 아기가 깨어 울어도 엄마는 환히 웃어줄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고맙다는 말에 서툴러서 미안해요. 늘 사랑하고 고마워요! 우리 가족 파이팅! 2시간마다 울어대는 신생아 육아하는 모든 부모도 파이팅!

Letter 02

새롭게 태어나다

유문주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2009년 3월 봄, 하루하루 무척이나 고된 나날을 보내던 남편이 늦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과로로 쓰러졌다. 뇌출혈 수술 후 남편의 머리는 파르스름한 빛을 띠었고 오른쪽 손발과 언어에는 장애가 남았다.

‘재활 치료만 받으면 금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지. 나의 꿈속에서 신랑은 저렇게 선명하게 말도 잘하는데 분명 돌아올 거야.’

믿고 또 믿었지만 생사를 넘나들던 위기에서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우린 하나둘 마음을 내려놓아야만 했다.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아픔의 시간이 찾아왔고 일상엔 온통 남편으로 시작해 남편으로 끝나는 나날이 되

었다.

그때 나는 아직 어린 초등학교 2학년 딸과 7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두 남매는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모르는 듯했다.

아들은 아빠의 빈 휠체어를 끌며 병원 복도를 신나게 달리고 다녔고 어머니와 내가 밤낮으로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는 동안 멀리 사시던 친정엄마까지 오셔서 두 남매를 키워주셨다.

우리 네 식구에게 평범했던 일상은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분주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늘 불안했다. 금방 회복되리라 믿었지만 야속한 시간은 희망을 쉽게 보여주지 않았고 마음엔 자꾸 어둠이 내려앉았다.

수술 후에는 지역 대학병원에서 재활, 작업, 언어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당시 신량은 40대 초반이었기에 주위에서도 금방 일어설 거라고 믿었고 본인도 누구보다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 운동에 매진했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걸까? 또다시 쿵! 혼자 운동하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야 만 것이다. 그동안 공들여 재활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대학병원에서는 최고 3주만 입원해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3주 후엔 일반 재활병원에서 6개월씩 옮겨 다니며 진료와 재활을 병행해야 했다. 그곳에서 만난 보호자들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정보도 나누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도 남편의 언어와 신체 장애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언어 치료를 받아도 상대가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회복은 더디기만 했다.

하지만 모든 숙제는 결국 스스로 풀어야 하듯 남편은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졌음에도 우울감이 찾아오지 않았고 별도의 심리 치료 없이 꾀꾀하게 버텼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1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일상적인 대화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비록 말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오히려 천천히 말하니 상대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2023년에 일어났다. 뇌출혈 이후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할 줄 알았는데 신차를 장애인용으로 개조해 왼손과 왼발로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벌써 무사고 3년째.

이제 남편은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꿈꾼다.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면 물려받은 논밭에 농막을 설치하고 주말농장을 운영해 보고 싶다고 한다. 처음엔 걱정되어 만류도 했지만 이제 내 생각도 달라졌다. 살아있는 동안 해보고 싶은 일 뭐든 다 해보라고 말이다.

남편이 큰 아픔을 견뎌내고 일어설 수 있었던 정신적 원동력은 ‘가족’이었으리라 확신한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책임과 의지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 후천적 장애를 안고도 세상을 견뎌야 했던 정신적인 의지가 있었기에 험난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었을 것

이다.

2009년 3월, 남편이 쓰러진 후 우리 가족은 모두 변해야만 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처럼 하루아침에 뒤바뀐 일상이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변모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딸은 손재주를 살려 웹디자이너로 성장했고 아빠의 휠체어를 끌고 놀던 아들은 간호학과 학생이 되어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 기특한 것은 얼마 전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 표창까지 받았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막내가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길 아빠와 엄마는 응원하고 기원할 뿐이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지’ 열일곱 해가 된 신랑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의 든든한 아빠로 곁에 있어 주길 소원한다.

아픔과 슬픔,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에 있다. 인생의 모험 길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마음과 지혜를 갖느냐에 따라 한 걸음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험난한 인생길을 포기할 건지 헤쳐 나갈 건지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재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으라차차!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 나가길! 그렇게 15년, 20년, 30년이 지난 뒤 우리 인생엔 새하얀 웃음만 가득하길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Letter 03

바람 속에 핀 꽃

명종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병원에서 일하던 우리는 그날 지하 2층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몸부림치며 쏟아내는 신음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몇 개의 분만실 중 한 방에서 앓던 여중생이 축복받을 수 없는 아이를 출산하고 있었다. 아이가 아이를 낳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딸을 키우고 있는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어린 여학생의 앞날을 위해 의료진은 주홍 글씨를 남기지 않으려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있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는 살을 찢는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었다. 처절한 절규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급기야 험한 욕설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더는 가능성이 없는지 아니면 산모나 아이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로 변경되

었다. 수술 동의서가 필요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자를 꼭 눌러쓴 청년이 숨을 몰아쉬며 도착했다.

직원들의 움직임은 빨라졌고 곧이어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 아기가 투명 케이지에 담긴 채 신생아실로 옮겨졌다. 수간호사의 말에 따르면 아기는 이미 입양될 곳이 정해졌다고 했다. 산모에게는 아기를 보여주지 않고 퇴원 즉시 아기는 입양기관으로 간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목 아래에서 뜨거운 것이 밀고 올라왔다. 보호자도 없이 여학생 혼자 와서 아이를 낳는 모습도 열 달 동안 품은 자식을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남의 품에 보내는 상황도 가슴을 아리게 했다.

사연은 알 수 없으나 한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고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내놓은 일은 가히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채 피지도 않은 꽃이 열매를 맺었다. 이 일에도 신의 섭리가 작용했으리라.

몇 해가 지나 ‘미혼·비혼모의 집’에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한참 들어가니 노란색 담벼락과 하늘색 지붕이 유난히 돋보이는 집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찾아가는 곳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었다.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미혼모 혹은 비혼모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출산 전후의 돌봄이나 심리 상담, 자립 준비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고 있는 곳이다.

1층 사무실에 들러 자원봉사자임을 알렸을 때 근무자들

이 모두 수녀님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녀님의 안내를 받아 2층 계단을 올라가니 알록달록 예쁘고 아담하게 꾸며진 산모들의 방과 공동 거실이 나왔다. 거실 한쪽에서 아이를 안고 수다를 떠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십 대 산모 둘이 있었다. 품에 안고 있는 아기가 인형이라면 더 어울릴 듯한 어린 모습이었다.

가꾸어진 화단이나 정원에서 피는 꽃만 꽃이 아니다. 이른 나이에 세상 풍파를 이겨내며 살아야 할 그들도 분명 우리 곁의 아름다운 꽃이다. 혈기 왕성한 나이에 독박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잠시나마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 시간을 봉사자들이 채워주는 것이다.

내가 돌볼 아기는 생후 3개월 된 여자아기였다. 수녀님은 분유를 먹고 난 뒤 항상 토하는 아기라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셨다. 지금은 성인이 된 내 자녀들의 갓난아기 시절 기억이 떠오르며 몸이 기억하는 대로 조심스레 소중한 생명을 다루었다. 모성 본능은 나이를 먹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안는 순간 꿈지락거리는 작은 파동이 온몸에 전해왔다. 분유를 먹인 후 아기를 내 한쪽 가슴과 어깨에 살포시 기대게 하고 부드럽게 등을 쓸어내렸다. 잠시 후 아기는 작은 물방울 소리를 내더니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때 알았다. 육아 방식이 서툴러서 아기가 자주 토했다는 것을. 나중에 산모에게 물어보니 손바닥으로 등을 톡톡 쳐주라고 배웠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아기가 토했단다. 그 말을 들으며 막막함이 올라왔다.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다



음 세대로 연결되는 생명 진화의 사슬에서 버려진 서글픔이 느껴졌다. 경험의 전달이 부재한 데서 오는 시행착오가 앞으로 아이의 삶에도 그림자가 될 것 같아 안타까웠다.

미혼모들이 겪는 현실은 단지 육아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를 품는 열 달 동안에도 출산 후에도 그들은 불편한 시선과 사실과는 다른 편견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병원, 학교, 거리 심지어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받는 차가운 시선은 어린 산모들의 자존감을 깊이 흔든다. 학교를 그만두거나 친구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고 직업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아이의 아버지나 양가 가족의 지원 없이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심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도 현실은 냉혹하다. 정부 지원은 있지만 필요한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자리를 포기하는 악순환도 흔하다.

아기를 재웠다.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주위를 둘러보니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검정고시 교재들이 눈에 아프게 들어왔다.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데 대해 이 사회는 책임이 없을까? 그들이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미혼모나 비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인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삶과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이 뒤따라지 상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 시설의 산모들은 어른들의 보살핌과 격려 속에 만약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아기를 포기하지 않은 용기가 대단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혹한의 겨울바람을 맞고 있는 시련 속의 청춘이라 할지라도 머지않아 향기 가득한 꽃을 피울 것이라 믿는다. 세상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있다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한 손에는 아이를 다른 손에는 책을 든 어린 저 청춘들은 분명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세찬 바람 속에 핀 꽃이 세상에 나가 향기를 발하고 그 꽃이 맺은 열매도 축복받은 생명으로 자라기를 염원한다.

Letter 04

나에게 여성시대는

박경현 | 경북 경주시



저는 3년째 여성시대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40대 여성입니다.

호주에서 10여 년 살다가 코로나19 자가격리가 없어질 즈음 고향인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매년 가족을 보러 오던 제가 호주 정부의 자국민 보호정책으로 3년 동안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이 제 자식 같던 우리 강아지 윤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넌고 당시 호주 남자친구 어머니는 말기 암 투병 중이었고 그러면서 향수병과 번아웃으로 제 가슴은 아주 많이 병들어 있었어요.

평소에 저는 라디오를 좋아하는데 호주 라디오부터 MBC SBS EBS 등 시간대마다 제가 좋아하는 채널로 듣다가 '정선

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시대'와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알게 되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라디오로 조금씩 달래곤 했습니다.

2022년 붉은 단풍이 물들 때쯤 긴 휴식 모드로 마침내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나라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는 뜻에서 조금 이른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긴 휴식기를 갖고 배우고 싶던 분야의 강좌나 강습, 자격증 취득, 취미활동 등을 하면서 4년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관계만 맺으며 외국 친구들과 지내는 동안 학창 시절의 찢친들이 늘 그리웠는데 막상 한국에 왔더니 그 몇 안 되는 친구들은 타 도시에서 결혼생활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만날 수가 없어서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거의 매일입니다.

그나마 가족과는 함께 지내서 따뜻한 밥과 사람 냄새는 감사한 일입니다만 한편으로 자유분방하게 살다 곧 오십을 바라보는 미혼의 딸과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동거는 서로를 많이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싸우기도 했고 모진 말로 눈물 흘린 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적응해서 가족만의 끈끈한 애정으로 서로 '그러려니~' 하고 받아줍니다.

저는 틈틈이 산책하는데 경주는 어딜 가나 고즈넉한 풍경

이라 제 마음이 치유됩니다.

건거나 청소할 때 혼자 있을 때는 늘 라디오를 듣습니다.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친구 같거든요.

‘여성시대’를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때가 3년 전인데 아침에 모닝콜로 시작할 채널을 찾아 여기저기 돌려보다가 편지 사연을 조금씩 듣다 보니 왜 청취율 1위인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제 나이대보다 윗세대가 좋아하나 싶어 망설였는데 들어보니 여성시대는 다양한 나이대 청취자들의 이야기였고 정감 있는 두 MC의 편안한 진행 속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박한 사연들이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침은 9시 뉴스로 시작됩니다.

그런 제가 갑자기 3월 말부터 여성시대를 못 듣고 있네요. 저는 25년 이상 쪽 일해 왔기에 성향상 아예 놀지는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종종 나가는데 다음 주까지 포항 죽도시장 기업은행에서 안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으로 여성시대를 듣지는 못하지만 대신 월간 여성시대를 읽으며 매일매일을 여성시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4월 10일이라 4월호를 배부하는 날이었는데 은행 문 열자마자 많은 포항 시민들이 오셔서 월간 여성시대를 가져가셔서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어느 중년 여성이 살짝 제 눈치를 보시며 두 권 가져가도 되느냐기에 주위 분에게 드리려나 보다 싶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아하시면서 여성시대를

40년 정도 청취했고 여러 번 사연을 보내서 사은품도 많이 받았고 공개방송에 가서 양희은 선생님도 뵈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저는 ‘님과 함께’와 ‘여자는 모른다’ 코너를 특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고객님의 사연이 방송된 날짜와 글 제목을 받아 놓았다가 점심시간에 다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책 읽기 좋아하는 주위 사람들과 ‘월간 여성시대’를 나누기도 하는데 처음 뵙는 분과 여성시대를 고리로 연결되는 게 신기하고 평소 애청자로서 또 기업은행에 일하는 이 시기를 기념하고 싶어서 제 사연을 조심스럽고 소소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내년 4월 전에는 어쩔 수 없이 호주로 가야 하는데 그때도 ‘스마트 라디오 미니’ 속 여성시대를 들으며 외로운 타국 생활을 잘 극복해 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여성시대는 시작했고 저도 같이 나이 들어가며 듣고 있고 먼 훗날 제가 우리 어머니 나이가 되어도 계속 친구처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가슴 따뜻한 내용으로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tter 05

일본인도 듣는
여성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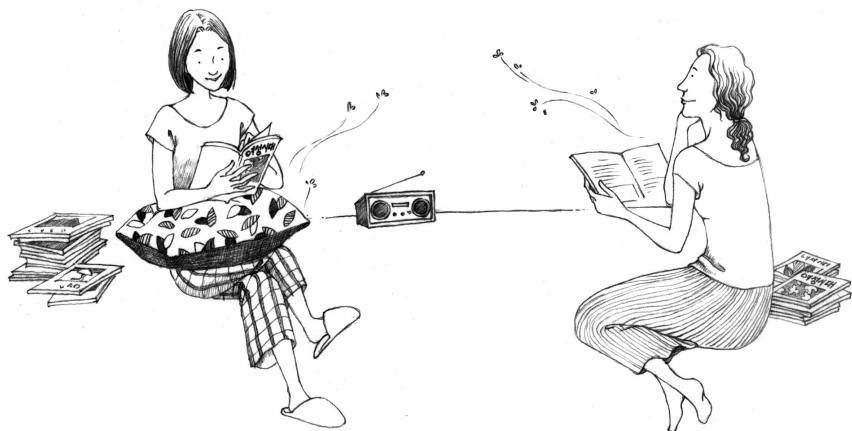
정나리 |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저는 군산에 사는 정나리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여성시대>에 사연을 보내보아요. 일부러 라디오를 찾아 듣지 않던 제게 <여성시대>를 새삼스레 다시 보게 해준 건 일본인 시즈카 언니 덕분이죠.

저희 부부는 외발자전거를 타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외발자전거 타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발자전거라니 특이하죠?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이 된 성공한 덕후라고 할까요.

남편은 이따금 외발자전거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3년 전쯤 일본 시즈오카라는 도시에서 열린 축제에 남편이 외발자전거 공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즈카 언니는 그때 남



편의 전담 통역사였어요. 정 많고 소녀같이 순수하며 한국어를 정말 예쁘게 잘했던 시즈카 언니.

5일의 공연이 끝나고 귀국하는 날, 둘이 헤어지는 게 아쉬워 남편과 둘이 부둥켜안고 엉엉 울 정도로 정이 깊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이후 시즈카 언니는 저희를 보기 위해 일부러 군산에 세 번이나 방문했고 저희도 시즈카 언니와 언니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시즈오카에 두 번 다녀왔어요.

시즈카 언니를 만나면 잠잘 때만 빼곤 내내 함께 여행 다니며 붙어있었죠. 언니의 가족들과 일본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남편과 저는 일본어 공부도 시작했고 초급이지만 일본어 급수 시험까지 합격했습니다.

시즈카 언니는 군산에 올 때마다 선물을 한가득 사 오고 저희도 이것저것 선물을 사 가곤 했는데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사 갈 테니 알려달라”고 해도 단 한번도 필요한 걸 이야기하지 않고 제발 빈손으로 오라던 시즈카 언니.

그런 언니가 지난 2월에 만났을 때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여성시대>인데 매일매일 듣는데요. 여성시대 책을 기업은행에서 매월 10일에 무료로 배포한다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다고 좀 구해다 주면 좋겠다고요. 저희 부부는 그 부탁이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3월 10일이 되자마자 기업은행에 가서 여성시대 책을 구해왔습니다. 기업은행에 가서 “여성시대 책 있어요?” 하며 물어보는데 어찌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4월 10일이 되자마자 또 기업은행에 가서 4월호를 받아왔어요. 5월호도 6월호도 열심히 모아두었다가 7월에 한국에 올 시즈카 언니에게 줄 생각을 하니 기뻐요. 언니의 한국어가 그렇게 또박또박하고 예뻐던 게 <여성시대>로 공부해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조금 욕심이 생기네요.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여성 시대에 매일매일 귀를 기울이며 행복해하는 일본인 여성 야마우치 시즈카상을 위해 혹시 여성시대 과월호가 있다면 몇 권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Letter 06

특별한 인연

야마우치 시즈카 | 일본 시즈오카



양 희은 님, 김일중 님, 안녕하세요. 지난 4월 14일 방송 된 전라북도 군산시의 정나리 씨 사연 속에 등장했던 ‘일본의 시즈카 언니’ 야마우치 시즈카라고 합니다.

나리 씨의 글을 통해 남편분인 김재인 씨가 시즈오카 공연에 출연했을 때 제가 통역을 맡았던 인연으로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저희 가족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 두 분이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 자격증까지 따셨다는 뜻 깊은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가 시즈오카에서 나리 씨에게 “혹시 IBK기업은행에 갈 일이 있으면 가는 길에 여성시대 책자를 부탁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었지요.

나리 씨가 귀국 후 다음 달부터 두 달 연속 IBK기업은행에

가서 여성시대 책자를 챙겨두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과월호까지 부탁해 주고 있는 내용을 방송으로 듣고는 나리 씨의 지극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성시대에서 재인 씨, 나리 씨 부부 집으로 여성시대 책자를 여러 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7월에 군산에 갔을 때 일본으로 가져오기엔 무거울까 봐 그리고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읽고 싶어 할까 봐 두 분이 국제우편으로 직접 챙겨 보내 주셨습니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라디오로 들었던 그 따스함이 고스란히 떠올라 무척 행복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성시대와 더불어 재인 씨와 나리 씨 부부의 깊은 정성과 세심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만남의 시작은 매년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거리공연인 ‘다이드게이 월드컵 인 시즈오카’였습니다. 2023년 한국 대표로 출연하신 분들이 바로 외발자전거 퍼포머 김재인 씨와 마술사 김승준 씨였습니다.

그 후 군산과 시즈오카를 오가며 재인 씨, 나리 씨 부부 그리고 승준 씨까지 세 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가까워졌고 지금은 제게 둘도 없이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서로 다른 빛나는 모습을 지닌 세 분이십니다. 먼저 재인 씨! 외발자전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실력은 그 자체로 관객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190cm가 넘는 장신으로 높은 외발자전거부터 유아용 자전거까지 경쾌하게 타는

모습은 정말 유쾌했고 그 반전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그 순수한 진심이 전해져 저도 내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이도게이 축제 기간 동안 전담 통역으로서 공항 마중부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장 가까이서 함께 보냈는데요. 그 때 제가 느낀 재인 씨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롭고 온화한 인품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늘 주변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던 그 속 깊은 마음은 지금도 한결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낌 없이 따뜻함을 베풀어 주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승준 씨의 무대는 마술의 틀을 넘어선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연극, 무용, 마임, 저글링 그리고 클라운까지 한 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세계관에 저도 모르게 매료됐습니다.

현장 분위기에 맞춘 재치 있는 애드리브는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마저 웃음으로 바꾸는 여유가 인상 깊었습니다. 관객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힘에서 프로페셔널함을 느꼈고 무엇보다 모두를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다정함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 공연처럼 찰나의 순간들을 정성껏 빚어내는 그 기특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리 씨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신기하게도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언어와 나라를 넘어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리 씨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밝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는 비타민 같은 분입니다. 동생이지만 때로는 언

니처럼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의젓하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늘 솔직하고 씩씩한 에너지가 무척 보기 좋고 그 미소를 보면 저까지 저절로 웃게 됩니다.

지금은 소소한 행복까지 함께 나누는 아주 각별한 친구가 되었고 제 일상을 한층 더 밝게 채워준 멋진 사람입니다.

이 세 분은 제게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저희 가족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분들을 ‘한국 가족’이라 부를 만큼 이제는 서로 부쩍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누나~ 언니~ 고모~’라는 한국 고유의 호칭으로 불러 줄 때면 일본어에는 없는 깊은 ‘정’이 느껴져 가슴이 저릿해 집니다. 부족한 저를 늘 아껴주시는 마음 넓고 따뜻한 분들입니다.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은 바로 이 세 분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이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 가족’과의 이 특별한 인연을 언제까지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정태원 선생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etter 07

여름날의 동행

김학자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어요?”
 “어머니, 저 앞집 사람이에요!”

“어, 맞아 맞아. 앞집 사람이지. 언제부터 거기 살았어요?”

“35년째 어머니네 앞집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앞집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일곱 바퀴를 돕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실세라 손을 꼭 잡고 걷다 보면 반 바퀴쯤 돌았을 때 어머니는 또다시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뻗히 바라보며 물으십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인 듯 다시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 앞집 사람이에요!”

“어, 맞아 맞아. 앞집 사람이지. 언제부터 거기 살았어요?”

“35년째 어머니네 앞집에 살고 있잖아요~”

이 대화를 일고여덟 번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정해진 산책 시간이 끝이 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늘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두 시간 정도 목상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7시 10분쯤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12층으로 올라가 앞집 벨을 누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 산책을 나섭니다.

한 시간가량 함께 걷고 나면 어느새 아침 8시. 그때부터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앞집에 사시는 어머니는 참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웃음도 늘 배시시 지으시던 분이었지요.

가끔 간식거리를 나누어 주려고 벨을 누를 때면 혹시 제가 쉬고 있었을까 봐 얼른 먹거리만 건네주고는 당신이 먼저 문을 당겨 닫고 들어가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서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요즘 치매를 앓으며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계십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집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여든일곱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1년 남짓 우리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정신은 또렷하셔서 제가 어릴 적엔 미처 듣지 못했던 옛날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

지만 결국 모진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앞집 어머니는 정신이 병들고 친정어머니는 몸이 병드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 또한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앞집 어머니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몇 년이라도 더 길어지기를 말입니다.

아파트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는 일부러 어머니께 층수를 눌러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하는 표정으로 검지손가락을 들어 12층 버튼을 꼭 누르십니다. 그리고는 ‘나 잘했지?’ 하듯 저를 뵈히 바라보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일부러 더 호들갑스럽게 칭찬해 드립니다.

“맞았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앞집 어머니의 연세는 80대 중반, 저는 60대 중반. 우리 둘 다 인생의 노을 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푸른 나뭇가지의 반짝임을 바라보며 함께 걷습니다.

Letter 08

어머님과 된장

안정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저는 혼잣말을 잘하는 8살 개구쟁이를 둔 쉼네 살 안정현이라고 합니다.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도 남자와 결혼하면서 제주도민이 된 사람이지요.

제주에서 살다 보니 제주만의 독특한 언어만큼 음식도 특별하더라고요. 특히 시골에 사는 우리 어머니는 모든 국에 된장을 넣으십니다. 나물 넣고 끓인 된장국은 당연히 받아들여졌지만 김치찌개의 밀간을 할 때도 오이냉국에도 콩나물국에도 된장을 넣고 미역국에도 넣어서 된장미역국을 먹을 때면 진한 일본 된장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주 토박이 남편을 위해 저 또한 여러 음식에 된장을 넣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시어머니의 삶이 된장과 정말 많이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49년생으로 며칠 전 77세 희수(喜壽)를 맞으셨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모여 함께 웃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지만 어머님의 어린 시절은 많이 고달팠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큰딸이기에 홀어머니와 동생 둘을 위해 열네 살 때부터 공장에 다녀야 했대요. 병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공장으로 출근했던 시어머님의 서러웠던 어린 시절 그 어린 소녀는 친구들을 부러움으로 바라봐야 했을 겁니다. 그 마음은 된장 속에 숨어있는 떼떵름한 맛을 닮았을 겁니다.

공장에 다니다 나이가 들어 어여쁜 신부로 결혼하셨을 때는 된장의 대표적인 맛인 고소한 맛의 시기였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들 하나를 잃으셨습니다. 김기훈 작은 도련님은 함덕해수욕장에 물놀이 온 어린이 둘의 생명을 구하고 본인은 힘이 빠져 그만 어머님 가슴속에 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그리움은 절대 씻기지 않는 짠맛이리라 헤아려 봅니다.

가까이 있어서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 식재료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게 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묵힐수록 더 진해지고 맛있어지는 된장이 어머님 인생 같아요. 지금도 어머님은 잘 들리지 않는 아버님의 귀가 되어주시고 어머님의 어머님인 아흔아홉 왕할머님의 손발이 되어주시며 요리 못하는 며느리를 위해 요리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어머님은 특히나 손자인 제 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세요. 저는 9년 차 어머님의 큰며느리로 이제는 된장오이냉국을 제



법 따라 만들 줄 아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된장을 바탕으로 다른 재료들과 합을 맞추니 이제는 제가 만든 음식에서도 구수한 맛이 넉넉하게 어우러집니다. 된장이 저에게도 소중한 특별한 식재료가 된 거죠.

경기가 좋지 않아 어머니 생신 때 케이크만 들고 간 며느리지만 어머니는 저의 영원한 어머니이세요. 어머니가 계시는 자체만으로도 저와 동서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우리 4대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Letter 09

하소연 좀 할게요

이혜영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공 무직으로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는 50대 초반 여성입니다. 대학생 두 아이와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시골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지방 소도시로 나와 제2의 고향처럼 터를 잡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IMF가 터지고 지방 도시에서 제법 건실하던 기업들도 많이 무너지면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일 자리를 찾아가다 보니 고향에서 더 떨어진 도시에서 가정을 꾸리고 어느덧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편의 외벌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갓난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끼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소득과 재산을 줄여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더러 있었지만 저희처럼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이 투명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외벌이 가정에는 부담이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가 기관에 가 있는 동안 이런저런 부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다 보니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는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더라고요. 공부해서 시험을 쳐 보자니 학원비나 교재비가 수업에 비해 너무 큰돈이라 시도조차 못 했습니다. 외벌이로 아이 둘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다 보니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이미 몸에 밴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모아서 집도 장만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기회가 생겨 나이 마흔 살에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으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환경을 살피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의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10년 넘게 하면서 놀라운 것은 기초수급자 가정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3, 40대 기초수급자 가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혼 가정이 늘면서 소득이 줄어든 한부모 가정이 많은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나 기초의료 수급자 가정은 대개 그 이유와 상황이 명확합니다. 질병, 사고, 장애 등이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이런 가정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작은 도움에도 항상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면 직업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하나같이 ‘현타’를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수급자나 저소득 가정에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이 많아지면서 자동차나 집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소득을 늘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30~40대 젊은 층의 경우 나중에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할 때 입시 전형부터 학비, 기숙사 우선순위까지 혜택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정방문을 다니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우리보다 못살지 않아.”

저 또한 공감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 월급은 정말 적습니다. 공무원이어도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이긴 하나 승진도 없고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 기본급만 조금씩 올라가는 박봉입니다. 10년 넘게 일했지만 솔직히 연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제가 둘 다 소득이 투명한 직장인이다 보니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물가는 얼마나 비싸고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교육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입시 전형 혜택이 없으니 일반 전형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남들 하는 대로 혹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교육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과목만 겨우 지원했는데도 수년간 빚이 늘어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연봉을 넘어섭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정 형편 생각하랴 남들과 경쟁하랴 치열한 입시판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지만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가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더 좋은 대학에 가고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을 보면 현타가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빚을 각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서민 가정의 아이들은 오히려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든 직장에서는 가장 하층 대우를 받는 소외감과 모멸감을 버텨내야만 자식을 뒷바라지할 수 있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놓아버린다 해도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 장만한 집과 차가 있는 이상 국가 혜택의 대상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면서 집을 팔아 수도권 통학거리로 이사를 가보려 했지만 지방 아파트 한 채로는 수도권 집을 살 엄두도 못 내는 현실에 좌절했고 어쩔 수 없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두 아이 방세와 학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끼리 국가장학금 정보를 교환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솔직히 속에서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들은 오히려 생활의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국가 기관 장학금 혜택으로 본인들 공부도 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사이버대학 학비가 거의 무료라 하나의 전공이 끝나면 또 다른 전공을 하며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저는 그들이 오히려 부럽기까지 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난을 면하기 위해 정말 ‘노오력’하며 삶을 일구어 온 저 같은 소시민들은 현실을 살아내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노오력하며 산 죄’로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근래에는 저 같은 평범한 가정의 부부 합산 연봉보다 혼자서 그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TV에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연예인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방송을 보면 세상이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뉴스에서는 무슨 정책마다 저소득 가정 우선이고 더 큰 혜택을 준다는 방송이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도 들지 못하니 뉴스도 듣기 싫습니다.

나라 정책 만드는 분들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박봉이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 같은 소시민들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직장에서는 차별, 국가에서는 소외 그러나 자식 앞에서는 부모이기에 강한 척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살아내야 하는 현실이 정말 힘듭니다.

Letter 10

삶이 힘들지라도

애청자



나는 전기통신 쪽 일을 한다. 일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사람으로 인해 힘든 일이 많은데 요즘이 딱 그렇다.

며칠 전 밤늦게 연락이 왔는데 전기공사를 했던 게 문제가 생겼다며 AS를 해달라는 전화였다. 한숨이 나고 화가 났다. 왜냐하면 그 전기공사는 2019년에 한 공사였다. 그리고 여태 까지 문제가 없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서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였다. 그런데 거기에다 자재를 전부 사비로 해결해서 다시 해놓으니 환장할 일이었다. 전혀 내 말을 듣지 않고 공사했으면 책임지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진이 빠진다는 것이 이런 걸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



냥 주저앉아 있고만 싶었다. 예민한 성격도 아닌 내가 그 전화로 인해 좋은 일에도 웃음이 나질 않았는데 같이 일을 하는 형님이 전화해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 그 형님은 오래전 위암 수술을 해서 술자리를 멀리하는 형님인데 갑자기 술을 마시자니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됐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호프집에서 형님을 만났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너야말로 무슨 일 있지?”

“네?”

“인마 너 뭐 일 있잖아. 자주 웃던 놈이 웃지도 않고 멍하게

있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저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안 그러던 놈이 갑자기 그러니까 당연히 말을 들어봐야지.”

형님의 말에 바보같이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 형님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다. 형님 앞에서 애기가 돼 조잘조잘 다 일러 바쳤다. 형님이 애기를 다 듣고는 말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형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네가 무슨 거액의 대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자주 들러서 문제 있나 없나 다 살피고 했는데 이걸 해도 해도 너무하지.”

“그러니까요.”

“양심도 없는 인간이 자재도 네 돈으로 사서 해달라는 거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제가 더 억울해 죽겠다니까요.”

“당연히 그랬겠지.”

“그 사람 전화받고 그다음 날부터 일도 잘 안되고 그래요.”

“심란하지?”

“그러죠.”

“이번 건은 네가 억울한 마음 있겠지만 그래도 해 줘라.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웃으며 말했다.

“나라고 그런 일 안 겪어봤겠냐?”

“형님도 이런 일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지. 이런 일을 한 세월이 얼마데 별의별 일이다 있었지.”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냥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런 일을 겪으면 당연히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이런 것도 인생 공부라 생각했지. 인생이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냐?”

“그건 그렇죠.”

“이런 일들 겪다 보면 웬만한 일에는 무뎌지는 것도 있다.”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던 그 기분이 형님의 조언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혹시나 또 이런 일 있으면 마음속으로 끄끄 앓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같이 욱 해줄게.”

“감사해요.”

억울했던 내 마음을 알아주는 형님이 있어서 든든했고 내 일처럼 욱해주는 형님이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사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간혹 있지만 내 편이 돼준 형님이 계셔서 더 이상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

형님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한결 나아진 상태에서 무리한 부탁을 한 고객을 찾아가 해결을 해주니 오히려 그분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 사람 마음이 감사한 게 또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 괜히 그분에게 미안했다. 사는 게 힘든 순간이 있어도 살아지는 건 또 이런 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Letter 11

중년의 유목 생활

김완 | 전남 목포시 용당로



“엄 마, 아빠는 거의 유목민이었네. 하하!”

언젠가 둘째 아들이 우리 집의 이사 이야기를 듣다가 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부부 교사인 저와 아내는 결혼 생활 36년 동안 무려 열여섯 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잦은 이사뿐 아니라 서로의 근무지가 달라서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신안과 진도에서는 같은 군에 근무하면서도 따로 생활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혼 초, 신안군에서의 생활은 임자도와 지도라는 섬에서 따로 살았습니다. 월요일이면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군내버스와 여객선과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며 출근했던 기억이 아득합니다.

두 아들이 태어난 후 진도에서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

니다. 저는 진도에서 첫째 아들과 생활하고 아내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관매도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진도에서 관매도 가는 길은 군내버스와 여객선과 마을의 경운기를 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첫째 아들은 엄마를 따라가는 동생이 부러워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주변을 맴돌았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우리 부부에게는 전남 곳곳의 어린이들과 함께했다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20여 년 만에 어렵게 광주광역시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거리 통근과 별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몇 년 만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광주광역시 생활을 정리하고 목포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정년퇴직까지 나는 5년, 아내는 10년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서 넉넉하게 함께 살자.”

그게 우리 부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다 정년퇴직을 했고 중년의 넉넉한 여유 생활은 계속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퇴직 3년을 앞둔 지난해에 덜컥 순천으로 승진 발령이 된 것입니다. 목포와 순천은 승용차로 왕복 3시간이 훌쩍 넘는 거리. 결국 순천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고 우리는 2년을 예정하고 ‘주중 순천, 주말 목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젊어서 수없이 반복한 일이니 딱히 새로운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우리 나이가 육십을 넘긴 중년이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유목 생활은 젊을

때와 많이 다르더군요. 웃기는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어느 날은 목포 집을 열흘 정도 비워두게 됐습니다. 혹시 문제 생길까 싶어 집안 점검을 얼마나 꼼꼼히 했는지 모릅니다. 가스와 수도는 잠갔는지, 전기는 안전하게 차단했는지 몇 번을 살폈습니다. 그렇게 열흘 뒤 어둑어둑한 저녁 무렵 목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의 대형 TV가 환하게 켜져 있는 겁니다. TV의 등장인물들은 아주 신나게 떠돌고 있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내가 TV를 열흘 동안 켜놓고 간 건가?’

‘과열돼서 불날 뻔한 거 아니야?’

‘누가 들어온 것은 아니겠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안내 방송 소리에 TV의 AI 기능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짐작일 뿐이고 10일간 TV 방영은 영원한 미제 사건입니다. 중요한 원인은 TV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까닭이지요.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집을 나설 때마다 “TV 코드 뽑았지?”를 몇 차례 확인합니다.

또 하나의 골칫거리는 ‘물건의 이동’입니다. 두 집을 오가다 보면 양말 한 짝, 티셔츠 하나도 어디에 있는지 헷갈립니다. 특히 가장 애를 먹인 것은 전기밥솥입니다.

“2년 쓸 건데 하나 더 사기엔 아깝잖아. 2년 후에 쓰지 않는 것도 문제고.”

결국 밥솥이 우리 부부와 함께 목포와 순천을 오가기 시



작했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 고이 모셔진 전기밥솥을 볼 때마다 꼭 옛날 장돌뱅이 술단지 같았습니다. 유목 생활 두 달쯤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목포에서 순천으로 이동한 다음 날 아내가 아침밥을 하려고 밥솥 뚜껑을 열더니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통은 어디 있어요?”

“밥솥 거기 있잖아.”

“아니, 밥통이 없어요.”

밥솥 몸체만 들고 왔고 정작 쌀을 담아 끓여야 할 밥통은

목포 집 싱크대에 얹전히 놓고 온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한 주 동안 즉석밥과 매식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가장 난감한 사건은 여권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고 내일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오늘까지 근무였고 제가 목포 집에서 여행 짐을 챙겨 순천으로 가져다주기로 했습니다. 밤 10시쯤 보성을 눈앞에 둔 지점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성은 목포에서 순천의 '3분의 2' 지점입니다.

“지금 어디쯤이에요?”

“보성 지나는데 왜?”

“여보, 여권이 목포 집에 있는 것 같아.”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보성 IC 전이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목포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순천으로 향하는 기나긴 야간 운전 중에 생각했습니다.

‘공항 가서 여권 찾지 않아 다행이네~’

이번 주말에도 전기밥솥을 들고 목포 집을 나서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앞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두 분은 매주 여행 다니는 기분이시겠어요.”

그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떠납니다. 이번엔 5박 6일 순천살이랍니다.”

중년의 유목 생활. 조금은 번거롭고 더러는 황당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부부가 가장 많이 웃으며 떠올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etter 12

긍정적 스트레스

정재성 |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저는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X-레이 촬영하는 부서에서 35년째 근무 중인 ‘방사선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은 누구나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마련이죠. 더구나 저같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요, 저 같은 50대 남성들의 로망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인’이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고향 김천에 갔는데 한 친구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포도 하우스는 400평짜리 2개 동으로 각각 A동, B동 이렇게 호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A동에 들어가 보니 친구 아내가 혼자 포도 순 작업을 하고 있고 친구가 B동에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B동으로 이동해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우리를 보고 너
무나 반가워했습니다.

“야, 친구야~ 니 언제 왔나? 온다고 미리 전화를 하지 그랬
나?”

우리 셋이 캔맥주를 따서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
누었습니다.

“내가 너 포도 순 작업하는 걸 보니까 참 평온하고 좋아 보
이더라. 이렇게 혼자 일하면 스트레스 같은 건 아예 없지? 부
럽다. 내 취향에는 이런 일이 딱 맞고 좋을 것 같은데!”

“아이쿠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반나절만 일
해 보면 그런 소리 절대로 안 나온다. 혼자서 이야기할 사람
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면 사람이 이상해진다.”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허리도 구부리지 않고 많이 힘들 것 같지 않은데?”

“혼자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내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떤 때는 내가 포도나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

친구는 포도 농사일도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꽤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일하는 게 적적하면 아내랑 따로 일하지 말고 A동 작업을 둘이서 같이하고 나서 B동으로 옮겨서 또 같이 작업하면 안 되나? 부부기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은 친구가 웃으면서 제게 하는 말.

“둘이서 같이 작업하다 보면 결국엔 싸운다. 의견이 달라서 맨날 싸워서 안 돼.”

현대인이 사는 곳은 어디에서든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돈 걱정, 일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등등.

언젠가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강의 하셨는데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스트레스(eu-stress) 그리고 디스트레스(di-stress). 유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이며 질병 저항력을 높여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디스트레스는 부정적이며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마음 설레며 도전하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은 유스트레스 같습니다. 유스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될뿐더러 꼭 필요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디스트레스도 우리가 마음 하나만 잘 바꾼다면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는 디스트레스를 환자를 향한 봉사라고 생각하면 유스트레스가 됩니다. 식당 주인이 힘들다고 불평만 하면 디스트레스지만 손님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는 좋은 마음을 가진다면 다시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종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도 농사짓는 제 친구 ‘김신성’이 말했습니다.

“포도 농사짓는 데 비용은 많이 들고 가격이 낮다고 불평하는 주변 농사꾼들이 많은데 사실 그 포도 가격이라고 하는 건 농부가 얼마나 좋은 포도를 생산하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거라서 결국은 농부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느 해는 포도값이 잘 나오고 어느 해는 포도값이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불평불만 하느니 조금이라도 농사를 더 잘 지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제 친구는 그러고 보니 유스트레스 쪽에 가까운 친구였나 봅니다.

여성시대 가족들도 디스트레스 그만 받고 유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감문면에서 포도 농사짓는 멋진 우리 친구 신성이처럼요.

Letter 13

오랜 나의 취미
국궁

박후선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름다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품은 성곽 도시 수원에 사는 50대 여궁사입니다.

2011년 수원 연무정에서 처음 활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취미로 하고 있지요. 처음엔 남편 손에 이끌려 억지로 배우게 된 거라 재미가 없었어요. 열심히 쏘아도 화살은 과녁을 빗나가기만 하니 더더욱 재미가 없었죠. 그래도 그곳에는 인생을 먼저 사신 많은 어르신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기에 주말이면 항상 활터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머리 아픈 일들을 활터에서는 오롯이 잊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15년째 취미로 활을 잡게 되었네요.

수원 연무정에는 120여 분의 회원들이 함께 행복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두 가지가 담배 끊은 것과 활 배운 것이다” 말씀하실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여성들이 하기엔 좀 힘들다는 선입견 탓인지 여성 비중이 120명 중 12명 정도이니 그게 좀 아쉬워요.

활은 자기의 힘에 맞게 찾아서 하면 되니까 누구든 용기를 내어 배우러 오세요. 오랜 전통이 있는 수원 연무정에는 많은 선배 공사님이 계시니 친절히 좋은 취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찾고 정년 퇴임 후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선 활쏘기는 비용이 저렴하고 가슴을 펴며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라 70~80대 어르신들도 등이 굽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답니다. 과녁까지의 거리가 145m인데 거기까지 왕복해 가며 자신이 쏜 화살을 거두어 와야 하니 적당히 걷기도 좋습니다. 국궁에서는 활을 쏘는 것을 ‘활을 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활을 낼 때는 여럿이 함께하지만 누구와 경쟁하기보다 오로지 혼자만의 기량을 스스로 갈고닦는 일이라 마음 수양에도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수원은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 정신이 깃든 도시이고 정조대왕은 활도 엄청나게 잘 내신 명궁이셨거든요. 매년 9월이면 연무대 성곽을 배경으로 ‘수원시 국궁 전국대회’가 열려 모든 궁도인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꿈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원 광교에 있는 명품 궁도장에서 행복한 활쏘기! 우리 함께해요.

Letter 14

암 수술 기다리는 씩씩한 딸

애청자



딸 은 대학교 2학년 수강 신청을 마치고 개강을 앞둔 시점에 라식수술 후 시력을 확인하다가 왼쪽 눈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꾸준한 검사와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자 안과 의사는 뇌 CT를 찍자고 하더라고요. 서둘러 당일 영상 촬영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해서 촬영하고 의사 면담을 기다리는데 먼저 촬영한 사람들이 수납하고 돌아가는데도 우리 차례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불안으로 바뀌는 찰나 드디어 차례가 되었는데 보호자만 들어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의사 표정에서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있어요. 뇌 아래, 코 왼쪽 부비동에 3.2센티

미터 정도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오갔습니다. ‘어찌지? 딸한테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가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은 듯 표정을 관리해야 하나?’ 당황스럽고 무섭고 서러운 마음을 누르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보호자만 들어오라고 하니 딸도 뭔가를 직감한 듯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머리에 뭐가 있대. 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래.”

담담하게 말은 했지만 딸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서류와 영상 자료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얘기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는데 딸아이도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플걸. 왜 아직 어린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이!’ 싶어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제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우리 딸이 덜 힘들 테니 엄마인 제가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2차 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러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더니 저와 딸을 번갈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양이 있네요. 소견서 써줄 테니 큰 병원에서 진료받으세요.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대체 얼마나 위험하기에 여기에서 안 된다는 건지 눈물이나는 걸 참고 차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뇌 아래쪽, 코 뒤쪽으로 시신경을 누르고 있고 위치가 좋

지 않다며 2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뇌 CT와 조직검사 결과를 가지고 가야 대형 병원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잘 치료하면 낫다고 힘내라고 딸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며 추가 검사를 하고 3차 병원 외래 예약도 3일 뒤로 잡아주었어요.

3월 6일 서울 모 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오전 9시 15분에 예약해서 대전에서 6시에 출발해 진료받았습니다.

부비동에 있는 종양이 조직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지만 추가 조직검사, MRI 검사를 하고 추가로 PET CT도 찍고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했어요.

검사 결과를 보러 가서 들으니 MRI는 악성으로 보이고 코 내시경으로 수술은 가능하며 뇌 쪽으로 침범되어 신경외과 교수도 수술에 같이 들어올 수 있고 수술로 종양 조직검사를 다시 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에 따라 추가 치료법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종양이 시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시력 저하가 있었고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병명은 ‘부비동암’으로 희귀암이고 원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두통이 자주 있어 진통제를 먹고 진료도 봤지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이라 했고 어린 나이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던 터라 ‘두통이 있을 때 정밀검사를 해야 했나? 두통 있다고 CT 찍어달라고 해야 했나? 그 시간을 놓쳐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낱자를 받아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도 할 수 없고 지금부터 걱정과 두려움에 싸여있으면 수술 전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요. 걱정도 미리 하지 않으렵니다.

딸이랑 저는 싸우고 화해하고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치킨도 자주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며 지내고 있어요.

우리 딸아이는 집순이라 학교, 집, 가끔 코인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 스틸러와 SF 책을 읽고 장난감 조립하는 것도 좋아하고 가수는 세븐틴을 좋아합니다. 중고등학교 힘든 시절을 세븐틴 노래를 들으며 버텼다고 해요.

이제 휴학하고 치료해야 한다니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상황도 속상하겠고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지 엄마로서 마음이 아파요.

수술 날짜 때문에 딸이 처음 가는 세븐틴 콘서트에 못 가면 속상할 것 같다고 했는데 다행인지 그렇게 고대하던 콘서트는 갈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했어요.

수술이 먼저라는 것은 알지만 기대하던 콘서트에 못 가면 속상해서 울 것 같다고 현실적인 잔소리는 하지 말고 가만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딸은 인천에서 열린 세븐틴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콘서트는 100점 만점에 몇백만 점이었다며 신나게 뛰고 떼창도 하고 응원봉 흔들며 즐기고 왔대요.

감동 받고 행복해서 울었다는데 수술 날 잡아놓고 시간이 버거울 텐데 그래도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어 다행이고 그런

딸을 보는 저도 눈물이 나네요.

체력이 조금 떨어지고 눈이 안 보이는 것 말고는 밥도 잘 먹고 통증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컨디션 유지해서 수술 잘하고 치료 잘 받아 복학도 하고 다음에 열리는 세븐틴 팬 미팅과 유닛 콘서트에도 가겠다는데 좋아하는 이런 일로 잠시나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잊으면 좋겠어요.

저하고는 성향이 반대라 많이 싸우고 빠치고 화해하고 그러지만 서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의료진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따라간다면 꼭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보다 힘들고 속상할 우리 딸은 참 단단한 것 같아요. 불안하고 힘들 텐데 내색도 하지 않고 저 같으면 매일 울고 원망했을 텐데 ‘의사 쌤 앞에서 걱정하고 울고 그러지 말라’고, 엄마가 그러면 자기가 더 불안하니까 보호자가 더 잘 버텨야 한다고 오히려 제 걱정을 합니다.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마음이 언제 저렇게 단단해졌을까요?

“딸, 우리 잘 이겨내자! 치료 잘 받고 팬 미팅하러 가야지! 사랑해, 딸!”

누님은 보이지 않게,
늘 곁에 계셨습니다.

주광영 | 경기도 화성시 관세주

5월의 햇살이 가장 환하게 쏘아지던 어제
(5월1일), 대구의 한예식장에서 저는 가슴으로
무는 허리를 보냈습니다.

셋째 누님의 귀한 외아들, 제 조카 민주가 장기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몇아홉 해 전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장을 막받아둔 어린아들을 두고,
누님은 위암으로 면관을 떠나셨습니다.

늙음으로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는데,
괴복 한 번 번듯하게 입혀 보지 못하고, 대학 합격
소식도, 군대 면회도 한번 가 보지 못한채 누님은

그렇게 서둘러 가셨습니다.

엄마 없는 봄을 얼마나 번이나 홀로 건너며, 그아이는
 자랐습니다. 무성거리던 예식장, "신랑신장!"
 소리에 두팔을 번쩍 들고 항성을 지르며 뛰어 들어오는
 조카의 모습에, 예식장이 한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신랑신부가 맞절을 하는 순간은 잊혀지가
 않습니다.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인주는 허리를 꺾듯 같이숙여 절을 하더군요,
 머리가 무릎에 닿고, 두손까지 모아 받쳐든 그 깊은
 인사. 수많은 결혼식을 지켜봤지만, 신랑이 그렇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 절 한번에 조카의 모든 삶이 녹아있는 것만 같았
 습니다. 엄마없이 건넌 온 봄이름새의 시간도,
 한 여자를 평생 지킬겠다는 단단한 다짐도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 누님이 보이지 않게 저 아이 곁에 늘 계셨구나'
 행진이 시작되고 꽃잎이 비처럼 쏟아질 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누님을 불렀습니다.

'명희누나! 보셨지요? 우리 아주 멋지게 자란 거,
 다 보셨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자리에는 차가운 빈자리가
 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따뜻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임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겉마음이 지란 아기가 한여자를 그토록 귀하게 맞이
 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면, 그건 참으로 혼자 자란 게
 아닐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등을 쓸어주고, 보이지
 않는 눈빛이 그 곁을 매 순간 비추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대성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 당신의 곁에도 보이지 않는 따뜻한 동행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떠난이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의 어깨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추억이니깐요 초콜릿의 꽃잎처럼 흰하고
 장미향기처럼 달콤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먼저 보낸 자리에
 차가운 빈자리가
 남는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따뜻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임...
 조일주 광영



여성시대 사진방



[0456] 여성시대를 통해 알게 된 성진 스님 사찰에 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1699] 제비들 좀 봐주세요.



[1843] 부산 송도입니다. 해변 모래 청소를 하고 있네요.



[9144] 마늘 캐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무척 따갑습니다. 등에는 땀이 줄줄 흐르네요. 하지만 수확의 기쁨도 있습니다.



[3594] 전주입니다. 멜론잎 제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일 후면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개의 멜론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몇백 번의 발걸음과 사랑의 손길을 주어야만 합니다. 현재 하우스 온도가 38도입니다.



[3248] 기업은행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충북 충주시 금곡강 의

여성시대 가족 정주용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충주에 사는 교육공무원인 저는
지난 5월 1일 모처럼 휴일을 맞아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기...325번 버스
타는 데가 어디예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꼭지어는 동네만 있지
주소도 없네요?

길을 묻는 연세 지긋한 어머니를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리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는 오빠를 찾아왔는데,
60년 만에 찾는 거라...
주소도 모르고 옛날 살았던
동네만 알아요.



혹시 예전에
짝사랑했던 오빠
찾아오신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엥 진짜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제 오지랖은 이미 어머니의 첫사랑 오빠를
찾아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관장님 제가
사람을 한 분
찾아야 하는데



마침 제 지인이 그 동네 부면장으로 근무할 때
이장님들과 연락하고 지냈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바로 닿지 않아
어머님의 연락처를 받아 정류장을 떠났습니다.

헤어지고 얼마 후 이장님의 전화를 받은 저는
기쁜 마음에 다시 정류장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떠나셨는지 안보이더군요.

어머니!
할아버지 아직
그 동네 사신대요.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
같이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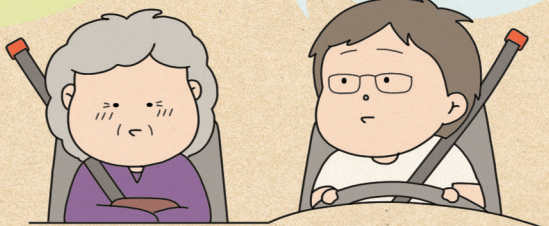
정류장으로
다시 오세요!

곧장 아까 받아둔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가까스로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차로 모셔다 드리기로 했지요.

내 고향이 포항인데,
오빠가 해병대에서 근무할 때
우리 집에 자주 오고 그랬는데...

정말 첫사랑이셨네요...

오빠가 먼저 결혼했어요.
서로 결혼식에도 가고...
그 후로도 한 번 못 보고
세월이 60년이 흘렀네요.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동네 어귀에 가니
아무도 없는 강가에 낙숫대를 던져놓고
한가로운 봄을 즐기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오빠...
나 알아보겠어요?



그럼~
알아 보고 말고.

이게 얼마 만이야?
여긴 어떻게 왔어?

두 분은 단박에 서로를 알아보셨고
저는 그렇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나는 아주
할머니 다 됐지요?



그럼 잘 지냈지.

뭘 똑같은.



모든 게 우연이지만 필연 같았던
마치 한 편의 영화같은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행복하게 남아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혁신과 도전으로 글로벌 기업을 꿈꾸다



IBK기업은행 경산지점 거래고객

옥일산업(주) 김광석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옥일산업(주)은 1999년 창립 이래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 기존 사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경영혁신, 첨단 자동화 설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옥일산업은 자동차 차체용 신 품 부품 제조업체다. 1999년 모터 사이클 브라켓 제조업으로 시작 하여 2009년 자동차 부품 제조 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였다. 현재 자동차 차체 부품 중 사이드 컴플 리트, 웬다, 멤버, 루프, 카울 크로 스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프레스 로봇 자동화, 용접 로봇 자동화 설비 구축을 통해 작업 현

장을 자동화하고 규격화함으로써 경쟁사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납품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 우수 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사에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 엇보다 설비를 자동화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꼼꼼한 품질관리 시스템 을 통해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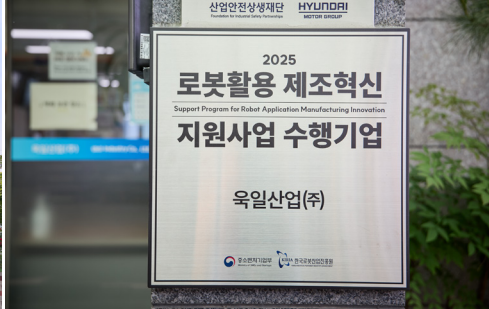


객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육일산업은 2008년 ISO9001:2008 인증을 시작으로 이노비즈 인증, HMC&KMC S.Q MARK 인증, 쌍용자동차 SSQ 품질인증, 에코바디스 인증, IATF 16949 인증 등을 획득하며 품질과 기술력, ESG 평가에서 모두 우수함을 입증했다.

김광석 대표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납기일에 맞춰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가 철칙으로 삼

는 것 중 하나는 직원들의 급여를 밀리지 않는 것이다. 그는 25년이 넘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의 월급을 제날짜에 지급한다는 원칙을 단 한번도 어기지 않았다. 또한 창립기념일과 연말 평가를 통해 격려금을 지급하고 매년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도 한다. 더불어 직원 생일을 반드시 챙기고 10년간 장기 근속한 직원에게는 금 5돈과 함께 감사패를 수여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다.



“저도 창업 전에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무엇보다 월급이 제때 지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제날짜에 월급을 받아 생활이 안정되면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직원들이 회사 일에 집중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매출이 증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

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광석 대표의 이런 철학 덕분에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일심동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해 주었다. 현재도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여 꾸준히 매출을 신장시켰고 지난해에는 매출 500억 원을 넘기기도 했다.

IBK기업은행 경산지점 김숙현 지



점장은 “육일산업은 축적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창업기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어 육일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

규 중견기업 도약 지원 프로그램과 IBK기업은행의 차별화된 비가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응원했다.



IBK기업은행 경산지점 김숙현 지점장(왼쪽)과 육일산업(주) 김광석 대표

❗ 육일산업(주) 김광석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품질 보증, 불량률 최소화로 고객의 신뢰를 얻어라.
2.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져라.
3. 직원들의 월급을 밀리지 마라.

육일산업(주)

대표 김광석

전화 054-337-1015

주 소 경북 영천시 대창면 금박로 744-100

홈페이지 <http://ukil.kr/>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믿고 쓰는 K-문구의 자존심 자바펜



IBK기업은행 강서중앙지점 거래고객

(주)자바펜 정창수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주)자바펜은 국산 필기구의 자존심이다.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바펜은 독자적인 국산 브랜드를 구축 해왔다.
우수한 품질로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자바펜은 필기구계의 국가대표다.

자바펜은 종합 필기구 전문 생산 기업이다. 한국 파이롯트에서 근무하던 정창수 대표가 1997년 국산 필기구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창업하였다. 창업 직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외산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산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30여년 간

회사를 운영해 왔다.

자바펜은 일상의 필기 경험을 풍요롭게 만드는 주력 제품군에 집중하고 있다. 중성잉크와 유성잉크의 장점을 결합한 ‘초저점도 잉크’를 적용해 찌꺼기 없이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는 ‘제트라인 시리즈’, 중성잉크 베이스의 특수잉크를 적용시킨 제품으로 잘 못 쓴 부분을 잔상 없이 갈



꼼하게 지울 수 있는 기능의 멀티 펜 '지워지는 펜 지움 3겔', 가장 완벽한 위치에 버튼을 배치해 최적의 클릭감을 선사하고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극 초저점도 유성잉크를 적용해 끊김없이 부드러운 필기감을 극대화한 신기술의 집약체 '사이드터치펜' 등 국내 기술로 제작한 다양한 제품이 있다. 이 밖에도 형광펜과 샤프 및 샤프심, 멀티펜 등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자바펜의 탄탄한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다.

자바펜의 가장 큰 차별점은 '기

술의 우직한 국산화'다. 대형 기업 들조차 수익성을 위해 수입 유통에 치중할 때 자바펜은 잉크와 축(Tip) 같은 핵심 부품부터 바디 디자인까지 국내 기술로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산화를 고집해 왔다. 또한 정창수 대표가 직접 매달 전국 판매점을 돌며 소비자의 불편 사항을 듣고 불량품을 수거하는 '현장 밀착형 품질 관리'는 자바펜만이 가진 진정한 경쟁력이다.

자바펜은 지난 2002년 FIFA 월드컵 공식 OEM 공급업체로 선정



되어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대통령 표창과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등을 통해 그간의 공로를 입증해 왔다.

“단순히 유행을 좇는 디자인보다 메가트렌드의 관점으로 끊임없는 필기감, 펜을 잡았을 때의 그립감, 무게 중심 등 기능적 디자인과 고품질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이 연구개발(R&D)에 매진하여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창업 초기 품질 안정화에 어려움이 있던 시기에 정창수 대표는 협력 공장들과의 동반 성장을 선택했다. 그는 납품 단가를 올려주며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주었으며 자바펜이 ‘믿고 쓰는 브랜드’로 자리 잡는 기반이 되었다.

IBK기업은행 강서중앙지점 박영



진 지점장은 “자바펜은 우수한 품질력 하나로 국산 필기구의 최강자로 성장하였다”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중국산 저가 제품 사이에서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해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애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비 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IBK기업은행의 철학에 따라 자바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국산 필기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응원했다.



(주)자바펜 정창수 대표(왼쪽)와 IBK기업은행 강서중앙지점 박영진 지점장

❗ (주)자바펜 정창수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라.
2. 현장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3. R&D에 끊임없이 투자하라.

(주)자바펜

대표 정창수

전화 02-2252-6677

주 소 서울 강서구 화곡로 63길 37

홈페이지 <https://javapen.com/>



여자는 모른다

81 사랑의 배달

85 전설의 공익

90 꿈꾸는 편의점

95 사과와 달램

98 남자의 로망

103 샌드위치맨



일러스트 | 조신애

여자는 모른다

사랑의 배달

애청자

어미 새가 어린 새끼를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 나르듯 나는 매일 무언가 소중한 것을 손에 들고 반려견 토이와 함께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한다. 전동 휠체어 바퀴를 힘차게 굴리며 달려가는 이 길은 어느덧 내 하루의 가장 빛나는 이정표가 되었다.

매일 아침, 커피 향을 즐기는 아내를 위해 온기가 채 식지 않은 모닝커피를 배달한다. 꽃을 닮은 아내를 위해 계절의 화사함을 사 들고 달리기도 하며 딸기와 참외를 좋아하는 아내의 입맛을 떠올리며 제철 과일을 손에 쥐고 서두른다.

수줍게 고개를 내밀던 거리의 벚꽃은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리더니 4월의 문턱을 넘어서자 마침내 눈부신 만개를 이루었다. 아내에게 가는 길목마다 늘어선 가로수가 온통 벚



꽃이라 나는 매일 아침 꽃놀이를 떠나는 상춘객(賞春客)의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 아내가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겨온 지도 어느덧 한 달, 그리움의 거리는 짧아졌으나 내 마음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하루에도 서너 번 아내의 얼굴이 눈에 밟히면 무작정 집을 나선다. 오늘은 무엇을 가져다줄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커피와 과일, 꽃은 물론이고 떡이며 과자까지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 들고 간다. 그럴 때면 아내는 “제발 이제 그만 좀 가져와요. 꽃도 이만하면 충분해요”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딱 하나 말리지 않는 것이 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정적을 깨며 문을 여는 커피전문점에서 아메리카노를 사 들고 가는 일만큼은 아내도 기꺼이 그 향기를 받아들인다.

집에 원두가 있어 직접 내릴 수도 있지만 드립 커피는 갓 내렸을 때의 생동감이 금세 사그라드는 법이다. 배달하는 동안에도 온기와 맛의 균형이 잘 유지되는 이 커피가 아내의 입술에 닿기에 더 적당하다는 것이 나의 고집 섞인 배려다. 왕년에 아내와 나는 수많은 원두를 골라 가며 드립의 묘미를 즐기곤 했다. 같은 원두라도 산지에 따라 맛이 다르고 품종 또한 무궁무진하여 아마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깊은 맛을 다 체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미지의 맛만큼이나 아내를 향한 나의 마음도 여전히 알아가야 할 것이 많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만개한 벚꽃이 벌써 바람의 부추김에 한 잎 두 잎 떨어져 길가에 살포시 내려앉는다. 나는 차마 그 고운 꽃잎을 훔쳐어 바퀴로 짓밟을 수 없어 살짝 비껴간다. 꽃길을 따라 사뿐사뿐 걸으며 엉덩이를 흔드는 토이의 뒷모습이 사랑스럽고 오늘 사 들고 가는 사과와 배가 아내의 마음에 꼭 들어야 할 텐데 하는 기분 좋은 걱정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강아지 동반이 어려워 병원 입구에서 전화를 걸면 아내가 내려온다. 오늘도 과일 봉지를 받아 든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못 말려요”를 연발한다. 그 환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도 꽃비가 내리는 듯 행복해진다. 병원 밖으로 나와 나란히 훔쳐어 바퀴를 굴리며 벚꽃 길을 달리면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 부부의 뺨을 부드럽게 스친다. 아내의 흰 머리칼과 나의 백발이 바람에 함께 나부끼고 토이는 꼬리를 바짝 세운 채 훔쳐어보다 앞서 달려 나간다. 노령견치고는 제법 씩

씩한 발걸음이다.

아내를 다시 병원으로 들여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개한 벚꽃을 보며 나의 삶을 가만히 비추어 본다. 꽃들은 지금 생의 절정을 구가하고 있는데 나의 삶은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들어 시들 날을 예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한편으론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모진 만고풍상을 겪으며 여기까지 꽃같이 걸어온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의 소박한 평화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지내고 있으나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동 휠체어를 타고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서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가.

다음 달이면 아내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오니 이 ‘그리움의 배달’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지난 한 달 아내에게 향하는 길은 나에게 매일이 소풍이었고 설렘이었다.

남은 보름 남짓한 시간, 아내의 귀가를 마중하기 위해 화산한 봄 점퍼와 블라우스도 미리 마련해 두었다. 아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모닝커피 배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아내가 좋아하는 독일 빵 ‘슈톨렌’을 사기 위해 지하철 다섯 정거장 거리에 있는 단골 카페 ‘오래된 나무’로 향한다.

휠체어 뒤 켄넬에 토이를 태우고 달리는 이 길, 빵 봉투를 열어보며 아이처럼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벅차오른다. 벚꽃은 벌써 한 잎 두 잎 이별을 고하며 떨어지지만 나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린다. 나의 세상, 나의 아내에게로.

여자는 모른다

전설의 공익

애청자

처음 신체검사에서는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문제였습니다. 재검사에서 계속 보류 판정을 받았고 입대했다가 3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 다음 영장이 오길 대기하던 중 결국 저는 1998년 2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는 사회복지요원이라 부르지만 당시에는 그냥 ‘공익’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교육청으로 배치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상업고등학교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교육청 소속 공익은 첫 사례였던 지라 학교로서는 저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일단 앉아 있어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초창기 저는 교무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앉아만’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선생님들과 잡담을 나누는 게 일과였고 내가 공익인지 그냥 말동무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밀레니엄을 앞두고 생활기록부를 종이에서 전산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던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공익, 니 컴퓨터 좀 치나? 이거 입력 좀 해 볼래?”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배정받은 작업 공간은 뜻밖에도 ‘양호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양호실로 출근해서 쌓여 있는 생활기록부를 하나씩 엑셀에 입력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그저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양호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고 양호실은 일종의 사교 공간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선생님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간식을 먹는 공간. 처음에는 제가 그 공간에 있는 걸 꽤 불편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하필 양호실에서 일을 시켜. 나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죠.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곶감 좀 먹으면서 쉬엄쉬엄해요. 나 잠깐 산책 좀 다녀올 테니까 양호실 좀 봐줘용~”

이쯤 되면 역할이 조금 바뀐 것입니다. 양호실을 지키고 있으면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저... 배가 아파서 왔어요.”

“이름 적고 일단 누워서 쉬어. 그럼 괜찮아질 수도 있어.”

“선생님, 저 넘어져서 까졌어요!”

“가만있어봐. 베타딘 바르고 연고 발라줄게.”

두 달쯤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양호 선생님은 외출이 잦아지셨고 학생들은 저를 자연스럽게 ‘양호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순간 그 역할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전산화 작업이 끝나고 다시 교무실로 복귀했을 때였습니다. 상업 과목 선생님이 다급하게 뛰어오셨습니다.

“공익!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단식부기 좀 알아?”

저는 회계학 전공이었습니다. 상업 교재를 한 번 쓱 훑어보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맡겨주세요. 저도 할 수 있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렇게 저는 교실에 들어갔고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 양호 선생님이 왜 오셨어요?”

“오늘은 내가 선생님이다. 근데 단식부기는 너무 쉬워서 재미없지 않냐?”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복식부기 원리는 알아?”

그날 저는 예정에도 없던 복식부기 강의를 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판서를 하고 사례를 들고 원리를 풀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명강의였습니다.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대체 교사’가 된 것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서 제가 대신 들어갔고 수학 선생님 회의가 길어지면 또 제가 들어갔습니다. 과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그야말로 저는 일타강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 안에서 ‘어디든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호실에도 있고 교무실에도 있고 교실에도 있는!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급식’이었습니다. 그해는 학교에서 처음으로 급식을 시작한 해였고 당연히 대규모 인원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든 음식을 직접 배달해야 했는데 자그마치 커다란 국 냄비와 반찬통 3개, 식판 50개였습니다. 한 학년에 13반까지 있으니 전부 39개 반이 있었고 이걸 나르는 건 거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면 교실 문이 열리면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며 “우와! 선생님이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식간에 아이들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반찬통은 들러 올라가고 냄비를 함께 옮기고 식판은 나눠 들러 나갔습니다.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었고 10분 만에 그 많던 일이 끝났습니다. 제 덕에 일이 쉬워졌다고 식당 사장님께서도 가끔 용돈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싸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학생회장이 저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양호실 가면 있던 분이 교무실에도 계시고 수업 들어가니 또 선생님이오 오시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28개월. 저는 그 학교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가장 쓰임 있는 사람이었으며 가장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무가 끝난 후에도 선생님들에게 연락이 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를 두고 “그 공익, 전설이었어”라고들 말씀하신다고요. 오십을 넘긴 지금까지도 그때 선생님들과 가끔 만나 술 한 잔 기울이고 있는 저는 ‘전설의 공익’입니다.

여자는 모른다

꿈꾸는 편의점

애청자

자정을 앞둔 시간, 안개 피어오르는 남한강 국도를 달리고 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출근길, 알바생이랑 교대하러 가는 길이다.

나는 성수동에서 편의점을 두 군데 운영하는 청년 사장이다. 한 곳은 무인점포고 다른 한 곳은 알바생 둘에 나까지 셋이서 3교대로 일한다.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좀 싫었다고나 할까. 특별한 기술과 스펙도 부족하고. 그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내 삶을 직접 책임지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다. 발주를 잘못 넣어 상품을 폐기한 날도 있었고 손님 응대하다 괜히 마음이 상해 하루 종일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 꽃잎이 흩날리다가 간간이 유리창에 부딪힌다. 차는 금세 영동대교를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

교대 근무자인 알바생이 구세주를 만나기라도 한 듯 반갑게 나를 맞아준다. 포스기 금액이랑 금고 금액이 일치하는지 인수인계 후 떠나보낸다.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새벽 2시쯤부터 6시까지는 손님이 거의 없다. 많아야 30여 명. 수익 면에서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 그럼에도 24시간 불을 밝히는 이유는 본사와의 계약조건도 있고 바로 옆 경쟁점에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함이다.

가게 안에 혼자 서 있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래도 참고 견디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 알게 됐고 단골손님들의 얼굴도 하나둘 기억하게 됐다.

간단히 청소하고 여기저기 선반이랑 창고 정리를 하다 보니 벌써 두 시다.

오토바이 굉음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헬멧을 쓴 배달원이 들어와 캔커피를 주문한다. 이어서 또 한 명의 손님이 들어온다. 휴대폰 두 개를 든 걸 보니 대리운전 기사다. 담배를 사자마자 쫓기듯 영수증도 받지 않고 도로 휩 나간다.

편의점은 참 묘한 공간이다.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의 하루가 그대로 묻어난다. 특히 이곳 성수동에서는 청춘들을 많이 마주해서 동병상련을 느끼는 일이 잦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다. 한 청년이 도시락 코너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손에 들었다가 놓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가장 저렴한 도시락 하나를 집었다. 계산대에 올라온 도시락을 보며 나는 살갑게 물었다.

“이거 데워드릴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야근하셨나 봐요? 어휴, 힘드시겠어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네, 그래도 어찌겠어요.”

나는 괜히 더 길게 묻지 않았다. 대신 도시락을 건네며 위로했다.

“그래도 잘 버티고 계신 거죠. 그게 제일 대단한 겁니다.”

그는 잠깐 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 아마 그 청년도 나처럼 지금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있겠지. 그 뒷모습을 보며 한동안 생각이 남았었다.

또 어떤 날은 푸른 어둠이 떠도는 이른 새벽이었다.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한 여자 손님이 들어왔다. 화장한 얼굴은 담담해 보였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소주 한 병만 달랑 집어 계산대로 왔다. 나는 평소처럼 봉투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기서 먹어도 돼요?”

“네, 편하게 드세요.”

나는 친절히 탁자 쪽을 가리켰다. 여자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을 보다가 그제야 소주를 한 잔 따랐다. 나는 괜히 신경이 쓰여 미니 소시지 한 개를 가져다주며 말을 건넸다.

“안주도 같이 드세요. 속 버리기 쉬워요.”

“오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목례로 감사 표시를 하더니 술을 한 잔 더 들이켰다. 그녀의 눈시울은 젖어 있었다.

“그럴 때 있죠. 이유 없이 힘든 날도 있고 이유가 있어서 더 힘든 날도 있고요. 지난 일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장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별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녀의 말이 오래 남았다.

편의점은 참 많은 이야기가 스쳐 가는 곳이다. 그래서일까. 나는 이 일이 점점 더 싫지 않다.

물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날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한숨부터 나온다. 그래도 나는 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를 어디론가 데려다줄 것이라는 걸.

필요한 물건 발주를 넣고 의자에 앉아서 몇 달 전부터 시작한 베트남어 회화책을 들여다본다. 중간중간 손님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건 둘째 치고 졸음이 밀려와 사실 별 효과가 없지만 목표 의식이 중요하다.

나의 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트남에 편의점을 오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빨리 벌어 춘천 고향에 전원

주택을 짓는 일이다. 1층에는 부모님, 2층에는 장모님, 3층에는 우리 네 가족이 사는 그런 집.

근무 중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찜질방은 별채로 할지 아이들 방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밀지 고민할 때면 이상하게 힘이 난다. 지금의 하루가 훨씬 더 견딜 만해진다.

옛날에 공장에 다니는 사람을 공돌이라 낮잡아 불렀듯이 사람들은 우리 편의점업계 직원을 편돌이라 부른다. 야간 근무자는 앞에 올빼미라는 말도 덧붙이는데 나는 한 번도 내색한 적은 없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다.

하지만 이제 정말 괜찮다.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고 내 인생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 몸은 피곤하지만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니 손님들 표정도 환해진다. 이렇게 손님들이 웃으며 인사를 받아줄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 오늘 퇴근길은 한결 가벼울 것 같다.

여자는 모른다

사과와 달램

애청자

저는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든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27살 남자입니다. 저는 스스로 연애를 꽤 해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전엔 눈치가 없었지만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을 겪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 너 정도면 눈치가 좀 있는 편이지~”

이제는 종종 이런 말도 듣습니다. 사랑을 통해 배웠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지금의 여자친구와도 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겪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싸우면 늘 이렇게 해왔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말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그리고 맛있는 걸 사주거나 시간을 함께 보내면 우리 사이가 다시 괜찮아졌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



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사과는 사과고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따로야. 나를 서운하게 했으면 내 마음도 좀 달래 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조금 멍해졌습니다.

‘달래 줘? 이미 사과를 다 했는데 뭘 더 달래 달라는 말이지?’

생각해 보니 저는 달랜다는 말의 뜻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로를 건네는 일도 감정을 붙잡아주는 일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물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내 말이 바보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나는 진짜로 달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자 여자친구는 “괜찮아? 많이 속상했지?”라고 먼저 물어봐 주고 ‘내가 이런 점이 미안해. 다음부터 안 그럴게. 걱정하지 마’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괜찮아? 많이 속상했지? 그것부터 묻고 그다음에 내가 이래저래 해서 미안하다.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다음에 또 다툼이 생겼을 때 그대로 했습니다. 괜찮은지 물어보고 왜 미안한지도 열심히 설명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 왠지 모르게 뭔가가 어색했습니다. 형식은 잘 따라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 역시나 여자친구도 그러더라고요.

“넌 아직 나를 달래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

철렁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은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싶어서요. 이제는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슬프고 힘들 때 외롭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네요.

‘사과’와 ‘달랠’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달래준다는 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번 연애에서는 처음으로 그걸 꼭 배우고 싶습니다.

여자는 모른다

남자의 로망

애청자

아침 6시 10분 첫 번째 알람이 울립니다.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끄니다. 그리고 5분 뒤 두 번째 알람. 이쯤 되면 아내가 옆에서 한숨을 쉬며 묻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알람을 세 개씩 맞춰?”

그럼 저는 눈도 못 뜬 채 대답합니다.

“첫 번째 알람은 마음의 준비, 두 번째는 현실 부정, 마지막은 인생 포기용이야.”

결국 세 번째 알람이 울려야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이미 지친 중년입니다. 머리숱은 뒤로 후퇴했고 뺨살은 앞으로 진격했죠. 넥타이를 매는데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출근길은 더 처절합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면 튕겨 나갈 듯

딱 차 있는 사람들 틈으로 몸을 밀어 넣고 있으면 제가 사람인지 오징어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제 등에 가방을 밀착시키고 누군가는 겨드랑이로 제 어깨를 고정합니다. 한 번은 너무 꼭 끼어서 다음 역까지 양팔을 못 내린 적도 있습니다.

겨우 회사에 도착해 아침 대신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잔. 예전엔 향으로 즐겼는데 지금은 거의 '생존용 수액'입니다.

부장님 눈치, 거래처 눈치, 후배들 눈치까지 보며 바쁘게 일하다 보면 오후 세 시.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 남은 건 뭘까?’

저도 청춘 시절엔 꿈이 많았습니다. 스무 살 땐 가죽 재킷 입고 오토바이로 달리던 그 형님들!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늘 꿈보다 빨랐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대출 갚다 보니 오토바이는커녕 제 용돈도 마음대로 못 쓰는 인생이 됐지요. 가죽 재킷 대신 작업복 점퍼를 입고 바이크 대신 중고 승합차를 몰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니다. 몇 년째 물려 있던 주식이 갑자기 폭등을 한 겁니다. 회사 화장실에서 주식 앱을 보는데 숫자가 빨갭게 올라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소변 보던 것도 멈출 뻔했다니까요.

그날 퇴근 후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오토바이 하나만 사면 안 될까?”

아내가 저를 뵈히 보더군요. 그리곤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가 쉼이야. 지금 오토바이 탈 체력이면 관절약 광고부터 찍어야지.”

하지만 이번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회사와 집 사이에서 제가 그냥 닳아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생애 첫 중형 바이크를 샀습니다. 출고 날 헬멧을 쓰고 거울을 보는데 혼자 피식 웃음이 났어요. 배는 나왔고 머리는 빠졌는데 표정만큼은 영화 주인공인 거예요. 괜히 가족 장갑까지 끼고 폼을 잡는데 아내가 뒤에서 쓱 나타나 굴 한 봉지를 툭 던져줍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 배달왕 납셨네~ 휴게소에서 배고프면 까먹어~”

순간, 울컥했습니다. 결혼 25년 차가 되면 ‘사랑해’보다 ‘굴 한 봉지’가 더 찡할 때가 있더라고요.

첫 목적지는 동해 바닷길. 바람이 헬멧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데 와, 진짜 살 것 같았습니다. 회사 전화도 없고 부장님 잔 소리도 없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달리는 기분. 그게 그렇게 자유롭더군요.

물론 멋있게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강릉 근처 편의점에서 바이크를 세우려다가 중심을 못 잡고 그대로 ‘철푸덕’ 넘어진 거예요.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달려와 세워주길래 너무 창피해서 제가 괜히 그랬습니다.

“원래 엔진 상태 볼 땐 이렇게 한 번씩 눕혀봐야 돼.”

학생들이 웃음 참느라 얼굴이 시뻘게지더군요.

그날 바닷가 벤치에 앉아 컵라면 하나 먹는데 이상하게 스무 살의 제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요즘은 두 번째 로망을 실천 중입니다. 시골에 작은 작업실 만들기!

충청도 산 아래 폐창고 하나를 얻었는데 처음엔 먼지가 폭발해서 재채기를 스무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망치질하며 나무 냄새 맡고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집니다.

주말마다 내려가 페인트칠하고 오래된 라디오도 가져다 놓고 작은 원두커피 머신도 설치했습니다. 언젠가는 LP판도 틀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지독한 ‘똥손’이라는 거죠. 한 번은 선반을 만든다고 설치다가 벽에 못을 잘못 박아서 전선을 끊어먹었습니다. 순간, 작업실 전체가 암흑. 전기 기사님이 오셔서 한숨을 쉬며 그러시대요.

“아이고~ 사장님. 로망도 좋은데 두꺼비집 위치는 알고 하셔야죠.”

그날 수리비가 선반값보다 더 나왔습니다.

감성 캠핑하겠다고 장작 난로도 들여놨는데 연통을 잘못 연결해서 연기가 작업실로 역류한 적도 있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뛰쳐나왔고 눈썹도 살짝 그을렸어요. 아내는 사진을 보더니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당신은 로망만 이루려고 하면 왜 늘 재난 영화가 되냐?”

그래도 행복합니다. 캔커피 하나 들고 마룻바닥에 앉아 있으면 ‘아, 나 아직 안 끝났구나’ 싶거든요. 이제 제 마지막 로

망은 캠핑카 타고 전국 여행하기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비웃습니다.

“당신은 캠핑카 사면 전국 여행이 아니라 ‘전국 휴게소 우동 투어’할 사람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전 풍경보다 휴게소 간식이 더 좋거든요.

그래도 언젠가는 아내와 둘이 시골길에 차 세워두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그런 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도 참 열심히 살았다!”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철없는 객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버티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이런 작은 꿈 하나쯤 있어야 숨구멍이 트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는 퇴근 후 헬멧을 닦아 놓습니다. 아내는 또 웃으며 말하겠지요.

“원 살 아저씨가 아주 청춘이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같이 웃을 수 있는 지금이 어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인지도 모르니까요.

여자는 모른다

샌드위치맨

애청자

저는 결혼 3년 차 서른다섯의 평범한 직장인 남편입니다. 목요일 아침마다 방송되는 남성시대, 여자는 모른다 코너를 들을 때마다 혼자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얼마나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는지 모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부남 형님들의 사연이 꼭 제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아리기도 하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싶어 서글픈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큰 용기를 내어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외줄타기하느라 온몸의 진이 다 빠져버린 제 고충을 털어놓고 전국의 남편분들 그리고 아내분들께 제 진심 어린 속마음을 전해 보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여성분들이 흔히 말하는 시월드에 대한 스트레스, 저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나 주변 유부남 친구들의 조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내 아내만큼은 시댁 스트레스 안 받게 내가 중간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죠. 아내가 시댁에서 편하려면 내가 먼저 처가에 가서 뼈가 바스러지도록 잘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결혼 후 지금까지 처가댁에만 가면 그야말로 슈퍼맨이자 일등 머슴을 자처해 왔습니다. 처가 행사가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은근히 긴장이 됩니다. 장인어른의 취향에 맞춘 전통주나 영양제를 바리바리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처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제 입은 “네, 장인어른! 그럼요, 장모님!”을 연발하는 자동인형이 됩니다.

평소 집에서는 피곤하다고 소파와 물아일체가 되던 제가 처가에만 가면 눈이 번쩍 뜨여서 장모님이 무거운 냄비라도 들라치면 “어이쿠, 장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녀석 좋게 빼앗아 듭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체질인데도 장인어른이 “이 서방, 한잔 받게” 하시면 “장인어른이 주시는 술은 보약입니다!” 하며 주는 대로 넘죽넘죽 받아 마십니다. 속이 뒤집어져도 겉으로는 허허실실 웃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처형네 조카들이 삼촌 등에 올라타서 머리 카락을 쥐어뜯고 로봇 수십 개를 늘어놓으며 놀아달라고 해도 제 허리 디스크는 잠시 잊은 채 온몸으로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그렇게 처가에서 1박 2일 동안 내내 사위로 기를 팍팍 살려 주고 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우리 남편, 이번에 점수 좀 땀네?” 고마워하고 웃어줍니다. 그 미소 한 번 보려고 내 아내 기죽지 말라고 저는 처가에서 기꺼이 광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저희 친가에 갈 때 발생합니다. 참 이상하죠. 처가에 가기 전날 저는 가서 열심히 점수 따야지 하는 전투적인 마음이 드는데 친가에 가기 전날 밤 아내는 세상 무너진 것 같은 한숨을 푹푹 쉽니다. “내일 몇 시에 출발해? 가서 자고 오는 건 아니지?” 하는 질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 제 마음속에도 은근한 스트레스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저희 본가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 바늘방석이 됩니다. 아내는 문이 열릴 때부터 인위적인 미소를 짓고 있지만 목소리는 한 톤 가라앉아 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마치 면접장에 앉은 수험생처럼 꼳꼳하게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도 못하고 앉아 있죠.

저희 어머니는 오랜만에 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손목 터져라 갈비찜에 잡채에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 내십니다. “아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많이 먹으라” 하며 사근사근하게 음식을 권하시는데 아내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손가락으로 밥알을 세고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얹어주어도 깨작거리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멍치는 짝 막힌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서운한 소리를 하실까 봐, 혹은 아내가 어머니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시월드 잔소리로 오해할까 봐 저는 친가에 있는 내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라운드 모니터링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그랬냐” 하시면 아내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럼, 제가 중간에서 냅다 선수를 칩니다. “엄마는 무슨 요즘 애들 패션을 몰라서 그래! 요즘은 이렇게 입는 게 유행이야. 엄마나 옷 잘 챙겨 입어!” 하고 엄마한테 짐짓 짜증을 냅니다. 어머니가 “둘이 벌어서 언제 집 넓혀 가냐 돈 아껴 쓰라” 하시면 “아유, 우리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엄마는 잔소리 좀 그만해!” 하고 제가 먼저 악역을 자처하며 어머니의 말을 똑 끊어버립니다.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오랜만에 본 귀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반가워하시던 부모님께 가시 돌친 말을 내뱉는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어머니의 눈빛에 언뜻 스치는 서운함을 보면서도 옆에 앉아 입을 꼭 닫고 있는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합니다.

나도 내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이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데 내 집에서조차 아내 비위 맞추느라 혹시라도 싸움이 날까 봐 부모님 눈도 똑바로 맞추지 못하는 제 처지가 순간 너무나 서글퍼집니다.

그렇게 온갖 긴장감과 피로 속에서 짧은 방문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며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조수석 고개를 창가 쪽으로 돌린 채 눈을 감아버립니다. 백미러로 슬쩍 보이는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보며 조용히 운전대를 잡은 제 마음에는 씩씩한 찬바람이 뽀하고 불어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처가에서는 머슴처럼 기어 다

니며 아내 기를 살려줬는데 왜 내 부모님 집에 올 때는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 눈치를 보며 가슴 졸이셔야 할까.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순간을 꼭 참으며 묵묵히 앞만 보고 운전합니다.

여성시대 누님, 형님들. 남자들은 참 단순합니다.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가에서 장인, 장모님께 백 점짜리 사위가 되려고 온몸을 던져 노력하는 만큼 제 아내도 저희 부모님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만 더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 그 작은 공평함 하나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 공기 맛있게 비워내며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라는 씩씩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걸어주는 것. 그 작은 정성 하나면 제 가슴속에 맺힌 서글픈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질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빌려 남편의 말 못 할 속마음을 고백하며 집에서 굳히 자고 있을 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여보, 나 당신 친정 식구들 정말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당신도 우리 부모님께 마음 조금만 더 열어주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 생각보다 여리고 정 많으신 분들이야. 당신이 조금만 다가와 주면 정말 많이 행복해하실 거야. 우리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사랑받는 예쁜 부부로 오래오래 행복하자. 사랑해, 여보.”

자족의 시간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드디어 스무 번의 방사선 치료가 마감되었다. 똑같은 순서로 반복됨에도 의료진은 “조심하세요. 네, 바로 누우시고요. 위치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어깨에 힘 빼시고요. 양쪽 손잡이는 느슨하게 잡으세요” 말하곤 했다. 치료 후에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매번 같은 말임에도 마음이 실리면 힘을 얻고 그 덕에 기운도 난다.

4월에 유방암 수술하고 5주가 지나야 방사선 치료가 가능했다. 6월 내내 주 닷새씩 치료 중에 각막이식 수술까지 해야 해서 옛새의 병가를 얻었다. 그 사이 여성시대 진행은 배우 한혜진 님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드디어 양성자 치료센터 출입을 마치는 날 그동안 치료해주신 두 분 선생님과 사진을 찍었다.

<치료를 마치신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센터>

벽에는 축하 인사와 큰 무지개 사진이 보였다. 드디어 휴가 분해지는 동시, 그간의 친절과 배려가 큰 고마움으로 다가왔다.

각막이식 역시 쉬운 수술이 아니라는데, 일주일 후의 외래 진료에서 담당의 선생님은 “수술 때도 그랬지만 너무 좋고요. 지금 뭐 거의 완벽하달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역시 가뻘했다.

나는 자축하려고 그동안 미루었던 남편과 나의 시계 배터리를 바꾸려고 강남에 갔다. 유명 브랜드는 물론 아닌데 제일 좋아하는 시계다. 하지만 간단히 뚜껑을 열 수 없어서(돌리는 기계로 돌려야만 열리는 구조) SNS를 있는 대로 탐색해 시계 장인을 찾았고, 그분은 황학동 품물시장에 계셨다. 최근 <다큐 3일> 동묘시장 편 내레이션을 했었기에 한 번 가야지 하며 ‘주차는 어찌할까? 언제 가는 게 좋을까?’ 궁리하며 게으름으로 미뤘는데 매니저가 강남의 백화점 안에 있는 시계 수리 명장의 가게를 찾아주었다.

‘이것저것 힘든 과정 다 끝내고 하는 자축이 꼭 특별할 게 있을까? 하고봤던 걸 하고 기분을 내면 되지.’ 싫어서 시계를

고치러 가게 된 것이다. 새 배터리 개당 2만 원씩에 시계는 가
기 시작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날아갈 듯했는데 아뿔싸.
남편은 집에 있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네. 지하 식품부 한
바퀴 돌아 김밥을 몇 종류 샀는데(아보카도 게살 김밥 한 줄,
불고기 김밥 두 줄, 충무김밥 한 세트, 고기 대신 건나물이
들어간 조랭이떡 떡볶이 한 개) 81,000원이다. 내가 너무 집
밥만 해 먹는 할머니가 되어서일까? ‘이 동네 못 올 곳이네...’
싶었다. 여기 조미료도 좀 쓰냐고 물었더니 ‘우리 김밥 장인
쌤은 일체 안 쓰신다’고 했다.

희경이 것도 남겼는데 저녁 6시가 되어가도 깔끔하니 첫맛
이 그대로인지라, 중국집에 가서 짜장 두에 볶은 밥 하나에
탕수육까지 먹을 만한 액수가 그리 억울하진 않았다. 압구정
에 있는 백화점 지하는 정말 놀라운 지하 세계였다.

시계 장인이 수리하는 모습도 지켜보기가 재밌었다. 손끝
의 움직임이 차분하고 느린 듯하지만 민첩해 보였다. 남의 엄
청난 집중 현장을 본다는 게 그랬다. 말도 크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보는 나도 조용히 집중을 유지해야만 했다.

돌아오는 길 더워도 너무 더웠다. 차 안은 무척이나 찌고,
쌩쌩 달리는 도로 양옆을 둘러보니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
어 있었다.

참교육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요즘 TV 드라마나 다양한 OTT 플랫폼의 시리즈들을 잘 챙겨 보지 않는다. 시작부터 흥미를 느끼는 경우도 잘 없고 그런 초반부를 넘겨서 빠져들면 결국 열 개가 넘는 에피소드를 다 봐야 해서 힘들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영화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런데 요즘 아주 핫하다는 드라마 한 편이 등장했으니 바로 ‘참교육’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 폭력과 무너진 교권 그리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단순히 통쾌한 권선징악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방치해 왔는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드라마 속 학교는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공간으로 묘사된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없이 타인을 괴롭히고, 교사들은 적

절한 지도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력감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강력한 방법으로 바로잡으려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상황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통쾌함을 느끼기도 한다. 아마도 그런 통쾌함을 느끼는 시청자가 비단 한국만은 아닌 거 같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인 걸 보면 말이다.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하지만 이런 고민과 드라마에 대한 깊은 성찰은 평론가들에게 맡길 일이다. 내가 쓰고자 하는 건 그야말로 한 명의 시청자로서 느끼는 감상평이다.

일단 이 드라마는 열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의 에피소드마다 스토리가 다르다. 그야말로 질질 끌지 않고 스토리의 전개 속도가 빠르다. 지루할 틈이 없단 말이다. 또한 요즘 공교육 제도 아래 불거지는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다. 학교폭력, 학부모 갑질, 지나친 입시 경쟁, 심각한 약물 복용까지. 최근 뉴스에서 접하는 대표적인 학교 문제들

을 드라마적 특성에 맞게 회차별 에피소드로 풀어낸다.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다려지는 교권보호국 김무열 캐릭터의 사이다 같은 해결. 또한 극 중 교육부 장관으로 나오는 이성민 배우의 촌철살인.

다행히도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두 아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지만 괜한 통쾌함을 느꼈다.

이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나의 학창시절도 떠오른다. 잘 못하면 단체로 벌을 받고, 성적 하락 시 정신이 번쩍 들게 체벌도 존재했던 8, 90년대 학교. 하지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 시절 과학 과목의 담임선생님. 흔히 말하는 몽둥이찜질을 시현하시고 화장실로 데려가 학생 한 명 한 명 바세린을 발라주셨던. 역시나 그때 당시 체벌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진 않다. 그저 학생이었던 나에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확실한 규칙과 끈끈한 정이 느껴졌다는 것.

집에서도 부모님께서는 등교한 이상 학교와 선생님께 자녀를 믿고 맡겼던 시절.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드라마 속 김무열의 학생을 향한 귀싸대기를 보면서 대리만족의 통쾌함이 아니라 과한 설정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싶다.



keykney<키크니>의
IBK기업은행을 알려드립니다!



IBK x 키크니



IBK급여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IBK급여라운지



매달 커피 3잔 주는
IBK가 금메달!!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AI × IBK
AIBK



초개인화 서비스

압도적 데이터 처리 능력

AI의 혁신 기술과

기업금융의 노하우

국책은행의 신뢰도

65년 기업금융 전문성이 만나

**내일을 창조하는
대한민국의 금융지능이 됩니다**

세상에 없던 금융지능의 탄생

① 초개인화 서비스

② 기업금융 AI 고도화

③ AI 친화적 경영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